

발행호: 45호

발행일: 2020.09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 1. ISSUE TALK

[005]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협력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

## 2. LATIN AMERICA FOCUS - “코로나와 라틴아메리카”

[027] 2.1. 라틴아메리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근본 원인 고찰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041] 2.2. COVID-19 이후 중남미 지역의 사회보호 정책에 대한 고찰

정상희 (계명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049] 2.3.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본 쿠바 공공의료의 함의

정이나 (쿠바 의과대학)

## 3. LATIN AMERICA BOOK JOURNEY

[059]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박정원 (경희대 스페인어과)



## 4. LATIN AMERICA VOICES

[069] 한국인이 보는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코로나 현황

김영숙 (국제 NGO 월드쉐어 아이티 지부장)

[079] COVID-19와 브라질 한인사회의 역동적 응대

손정수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 전 이사장)

## 5. ILAS 소식

[95] 간추린 소식







**ISSUE TALK**

##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협력**

---

황 경 태 (외교부 중남미국장)

## “중남미 내 코로나19 확산 현황”

2020년 2월 26일,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한 브라질 중년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한동안 중남미는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서서히 증가하던 중남미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4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5월 중하순 경에는 중남미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WHO, 5.22.)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확진자 수 비중도 4월 중순 3%에서 5월 중순 9%, 6월 중순 13%, 7월 중순 26%로 치솟더니 8월 중순에는 30%를 넘기게 되었다. 중남미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임을 감안해 볼 때, 중남미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륙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누적 확진자 수 기준,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중남미 국가들이다. (2위 브라질, 5위 페루, 7위 멕시코, 8위 콜롬비아, 9위)

중남미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대표적 원인으로 중남미 각국 내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높은 비공

식 노동의 비율,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등이 손꼽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요원하며, 당분간 중남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 외교는 멈추지 않는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중남미 각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힘을 모아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중남미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 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였다.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응을 깊이 존경하고 배우기를 희망한다.’면서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고,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4.6. 통화), 온두라스 에르난데스 대통령(6.12. 통화),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7.3. 통화) 등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 경험 공유 등에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중남미 여러 국가들과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G20 특

별 화상 정상회의’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브라질 외교장관과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의그룹 외교장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을 소그룹으로 나눠 네 차례에 걸쳐 본부-공관 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양자외교 일정과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과 진출 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포스트 코로나 외교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코로나19 관련 중남미 지역 재외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실적

개최일	주재	대상 그룹	회의 참석 공관
4.2.	장관	중남미 주요국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5.19.	1차관	메르코스르 그룹	브라질, 상파울루(총),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5.27.	차관보	태평양동맹 그룹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5.29.	2차관	중미(SICA) 그룹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 “함께 하는 위기 극복 노력”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선도국가로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 보건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남미 24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각국의 필요에 따라 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방역 경험을 중남미 우방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한-중남미 방역협력 웹세미나(4.21.)를 비롯, 한-칠레(3.13.), 아르헨티나(3.19.) 관계부처간 컨퍼런스 콜, 인천공항 출입국·검역시스템 관련 한-콜롬비아 화상회의(4.29.) 등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8.13.)을 개최하여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양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기 및 전망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미주기구(OAS)와는 선거 경험 공유 화상회의(8.19.)를 개최하여 우리의 선거 방역시스템을 중남미 지역과 공유하고 선거 분야 한-OAS 협력 확대를 도모했다.

##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도 외면받지 않도록”

중남미 내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교부는 중남미 각국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중남미 23개국에서 총 1,766명의 우리 국민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귀국하게 되었다. 그 중 페루 지역 우리 국민 소개 작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3월 중순, 페루 정부는 갑작스럽게 국경 폐쇄 및 이동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쿠스코 등 고산지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이 출국은 물론, 미처 저지대로 대피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의료시설도 미비한 상황에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무척 우려스럽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즉각 현지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페루 전역의 우리 국민 상황 파악을 지시하고 페루에 정부 임차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리마까지 운항이 가능한 외국 항공사를 접촉해 교섭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지만, 페루 전역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현지 교통수단을 임차하고, 도시 간 이동을 위해 페루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을 리마까

지 이동시켜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전세기에 탑승시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다행히도 페루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우리 대사관과 코이카 등 공공기관의 헌신적인 노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뛰어난 시민의식 덕분에 198명의 우리 국민이 정부 임차 전세기를 타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외교부는 현재에도 우루과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루과이 측이 제공하는 인도주의 통로(humanitarian corridor)를 통해 우리 원양어선 선원 110여명이 무사히 하선하여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남미 협력을 위해”

외교부는 중남미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인의 중남미 예외 입국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 KOTRA,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중남미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칠레 차카오 교량 건설 사업을 위한 기업인 20여명 입국, 아르헨티나 리튬 데모플랜트 사업 관련 기업인 16명 입국 등을 지원했다.

8월에는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이 방한함으로써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남미 국가들과의 최초의 대면외교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칠레 간 보건·의료·방역 협력이 본격화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10월에는 브라질 인프라부와 함께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오프라인 또는 웨비나로 개최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당초 범미보건기구(PAHO)는 칠레·콜롬비아는 7월, 브라질·페루·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은 8월 중 정점에 도달하고, 10월 초에는 사망자가 43만명 돌파할 것으로 예상(6.30.)했으나, 현재 추가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즉, 언제 중남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남미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중남미는 황열병, 지카바이러스, 홍역 등 전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자원 인력도 풍부한 관계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시노백, 미국 화이자 등 백신 개발 3대 선두권 회사들이 중남미에서 최종 단계의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은 야심찬 백신 생산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중남미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왔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잃지 않아 왔다. 중남미가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한-중남미 관계가 유례없이 활발해질 날을 기대한다. 끝.

## 저자소개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콤플루텐세대와 영국 랭카스터대에서 공부했으며, 스페인, 페루, 교황청, 베네수엘라에서 근무했다. 외교부 중미카리브과장, 중남미국 심의관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중남미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LATIN AMERICA **FOCUS**

## 라틴아메리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근본 원인 고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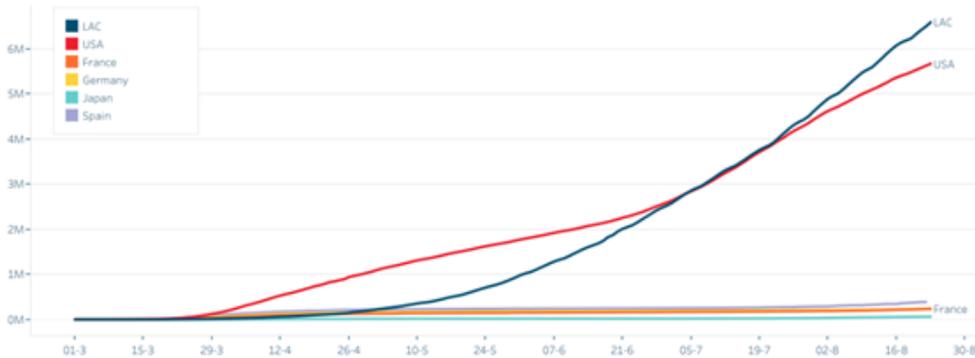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전대미문의 COVID-19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2020년, 이 바이러스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을 거쳐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던 코로나 발생 초기엔 청정구역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유럽과 미국으로 진앙이 옮겨온 3월부터 감염자가 나왔고, 그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8월 말을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누적 확진자는 660만을 넘어섰으며, 7월 초를 기점으로 미국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그림 1).

가장 심각한 국가는 브라질이며 8월에 350만명을 돌파하였다. 인구대비 확진자의 수도 세계 평균이 10만명당 105명인데 반해 라틴아메리카는 269명으로 두 배 이상 많다. 진단역량을 감안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사망자수인데, 세계 평균인 인구 10만명당 5.78명의 두 배가 넘는 12.95명이다 (IDB 2020). OECD 회원국으로 모범적 경제발전 사례로 주목받던 칠레의 경우에도 확진자가 40만명에 달해 인구대비 세계 최대 환자수를 기록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현황과 원인을 의료체계, 거버넌스, 경제침체, 불평등 구조의 네 가

지 차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1 국별(대륙별) COVID-19 환자수



자료: IDB (2020)

## 무너진 의료체계

왜 COVID-19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가? 1차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속수무책인 부실한 공공의료체계를 들 수 있다. 우선 라틴아메리카에는 전 세계 병원 (hospital)의 22%가 몰려있을 정도로 병원 수가 적지 않다. 다만 개별 병원의 규모가 작는데, 미국의 병원당 평균 병상 수가 162인데 반해 라틴아메리카는 46에 불과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독일이 8.3인데<sup>1</sup>, 푸에르토리코는 3.6, 아르헨티나 2.4, 도미니카 공화국 2.3에 불과하며, 페루의 경우 1에 머물고 있다 (ITIJ 2020).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장비나 키트도 자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제때 환자를 확진할 수 없다.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4%만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다 (UN 2020, 8). 의료인력도 양적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환자 치료에 투입되어도 적절한 병원 시설이나 방호복, 산소마스크 등의 장구도 부족하여 의료진들조차 감염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그림 인구 1,000 명당 병상수 (ITIJ)



자료: ITIJ (2020)

<sup>1</sup> 한국의 1,000명 당 병상 수는 12.2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다

## 정부의 무능과 방기

라틴아메리카에서 코로나 방역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여러 정부의 무능과 방기에 있다. 많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어적 수사로 대응할 뿐 실행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확진자만 350만을 넘어선 브라질의 방역 실패 스토리는 묘하게 트럼프의 미국과 닮아있다.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브라질에 막 도달했을 때, 정부는 공항 방역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초기 단계 방역을 시행할 역량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바이러스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이 되어서야 팬데믹 (Pandemic)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대처가 지연되었다. 여기까진 초동대응이 다소 부실했던 어느 국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상황이 심각해졌어도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SNS를 통해 ‘터프한 브라질 국민에겐 가벼운 감기 정도’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WHO의 권고도 무시하고 별다

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보건부와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대응 준비를 시작하자, 대통령과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보우소나루는 우선 자신과 다른 길을 가는 보건부 장관을 해임하였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해임된 장관은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던 몇 안 되는 의사 출신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후임도 의사 출신을 임명했지만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원래 브라질은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공중보건 체계 (Sistema Unico de Saude)가 잘 구축된 국가이다. 기존의 체계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규제와 모니터링을 책임지며, 지자체는 예산을 매칭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협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재정위기로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보건 시스템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각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간 공중보건 서비스의 양적 질적 격차도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통령의 무관심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실종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자 실제적인 방역 책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료인프라와 재정상황, 그리고 주정부의

인식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궤적을 보이기 시작했다. 남부의 산타 카탈리나주의 방역 성공이나 북부의 아마존 인디언 다수가 무방비 상태로 감염된 상황은 같은 국가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중앙정부의 방기하에, 지자체의 개인기 또는 대응력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를 풀 것을 부추겼고, 이렇게 바이러스는 라틴아메리카 최대국가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Tavares de Almeida 2020, 109-110).

다른 한편, 우리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칠레의 성공모델에 지난 30년간 취해있었다. 오늘날 코로나가 거품을 거두자, 칠레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사회경제 측면에서 극심한 불평등 구조, 정치적 측면에서 국민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왜곡된 정치 구조가 보이게 된 것이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보건부 장관,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보신주의로 일관한 대통령과 참모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남발했던 정치권과 언론 등이 이런 상황을 잉태한 주범이다. 어찌보면 2019년의 대규모 민중 집회를 통해 부실한 사회시스템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이미 폭발시킨 바 있는 칠레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모범적인’ 칠레 사회에선 상상하기 어려웠던 마약 유통과 폭력 사태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 **I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저성장**

지난 5년간 (2014년-19년)의 역내 성장률은 0.4%에 불과할 정도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저성장의 늪에 장기간 빠져있었다. 이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저성장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자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코로나 시대, 국가간 이동이 막힌 시점에 1차 산물 수출에 집중하며 관광이나 송금 등 세계화의 외부요인에 의존도가 큰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부실한 인프라와 이미 바닥난 재정능력 탓에 대규모 방역 프로그램을 가동한 수단도, 의료진의 희생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역내 ICT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대면 활동 기반으로 진행된다. 2주에 한 번씩 받는 급여(quincena)나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익숙한 모습이다, 도시내 이동도 매

우 활발하나, 이에 반해 대중교통망이 충분하지 못해 버스나 지하철은 항상 붐빈다.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거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오히려 더 많은 교통 수요를 야기해, 인프라의 절대 공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혼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전자상거래, 배달문화 등도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여, 한국과 같은 수준의 비대면 활동으로의 전환은 극히 일부 계층에게 해당되는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 불평등 구조

콜로라도에서 스키 휴가를 즐기고 상파울루로 돌아온 부자는 최고 의료 시설에서 완치되었지만, 바이러스가 퍼진 파벨라(favela, 브라질의 빈민가)에선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미국과 흡사하게 바이러스는 라틴아메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구조를 타고 확산된다. 다만 그 구조의 모순성이 매우 깊게 각인되어 있고, 스케일이 클 뿐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의 위기가 온 직후 중산층은 추락하고, 통치의 위기가 대두된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이미 빈곤

과 불평등을 못 견디던 저소득층의 요구가 여기저기에서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곧 코로나의 희생자가 되었다 (China Builes 2020, 120).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경제폐쇄 또는 이동제한조치(lockdown)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적인 방역 수단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민 경제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 고용의 반 이상이 비공식부문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선 하루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저소득층, 특히 도시 빈민들은 가만히 집에서 굶어죽느냐,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며 돈을 벌다가 바이러스에 걸리느냐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코로나 확산 초반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등 대부분 국가에서 부촌을 중심으로 1차 감염자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지역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반면 대도시 빈민가에선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 비율이 높고 (80%), 무려 17%의 인구가 인구 1천만 이상의 6대 대도시 (Mega City)에 거주하고 있고, 대도시 인구의 약 20%는 슬럼에 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사회 전 분야는 취약성을 노출하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베네수엘라 출신 경제학자인 리카르도 하우스만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듯이, 심각한 경기 불황기에 찾아온 팬데믹은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것이 확실하다 (China Builes 2020, 122). 장기적으로는 대안적, 포용적 발전의 모색만이 살길이다.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 비전의 수립에서부터 각 섹터 단위의 액션 플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출 농산물 및 식량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내 가치사슬에서 육성이 가능한 바이오 산업의 중간재 산업을 키우는 등의 길은 제시되어 있다. 문제는 어떻게 빠르고 혁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라틴아메리카 정치권의 면면을 보건데 전망이 그리 밝다고 보기 어렵다.

## 참고문헌

Chica Builes, Carolina (2020). “The coronavirus: another poverty trap for Latin America”. in Gardini, Gian Luca (ed.) (2020).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Europ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ieeiweb.eu/wp-content/uploads/2020/06/Full\\_book\\_FINAL\\_EN2.0-UNIDO.pdf](https://www.ieeiweb.eu/wp-content/uploads/2020/06/Full_book_FINAL_EN2.0-UNIDO.pdf)

“Chile en la crisis de COVID-19: ¿Por qué un país modelo parece hundirse en el caos?” DW: Deutsche Welle. 26 Mayo, 2020. <https://www.dw.com/es/chile-en-la-crisis-de-covid-19-por-qu%C3%A9-un-pa%C3%ADs-modelo-parece-hundirse-en-el-caos/a-53577659>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20). COVID-19: Situation updat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3 August, 2020. <https://www.iadb.org/en/coronavirus/current-situation-pandemic>

International Travel & Health Insurance Journal (ITIJ) (2020). Covid-19 and the Latin American healthcare system. 11 July, 2020. <https://www.itij.com/latest/long-read/covid-19-and-latin-american-healthcare-system>

Tavares de Almeida, “Brazil: pandemic, populism, and international decay”. in Gardini, Gian Luca (ed.) (2020).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Europ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ieeiweb.eu/wp-content/uploads/2020/06/Full\\_book\\_FINAL\\_EN2.0-UNIDO.pdf](https://www.ieeiweb.eu/wp-content/uploads/2020/06/Full_book_FINAL_EN2.0-UNIDO.pdf)

UN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July 2020. United Nations

##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국제학연구원장, 및 LINC+ 사업단 글로벌비즈니스혁신센터 센터장이다. 다자간 국제개발협력,

외국인 직접투자, 중남미 정치경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을 진행 중이다. 미주개발은행(IDB)의 무역지역통합국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ECLAC) 등의 국제기구와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개발협력 사업 컨설턴트 및 평가 전문가로 참여중이고,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비롯 정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도 활발히 수행중이다.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졸업(1988) 후 영국 리버풀대학교 중남미지역학 석사 및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1996)했다.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쿠바 의료외교의 유용성과 한계 (2019)”,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공저), <<떠오르는 브라질>> (역서)가 있다.





LATIN AMERICA **FOCUS**

## COVID-19이후 중남미 지역의 사회보호 정책에 대한 고찰

---

정 상 희 (계명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지난 3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COVID-19는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8월 22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2,767,009명이며 사망자 수는 794,435명에 이르고 있다. 대륙별로 미주 12,164,684명, 유럽 3,909,981명, 동남아시아 3,459,439명, 아프리카는 984,140명에 이르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의 감염자 수는 3,501,957명, 페루 567,059명, 멕시코 543,806명, 콜롬비아는 513,7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COVID-19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는 특징지역과 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건, 의료분야의 위기를 넘어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역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킬컬렌(David Kilcullen)의 언급처럼, “COVID-19는 공공보건의 위기로 고려되었으나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난 이후 경제위기로 변화될 것이며 연내에는 국가안전의 이슈가 될 것이다(Hussin, 2020)

초기 기온이 높아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감소 될 거라는 언급이 있었고 따라서 중남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남미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보건시스템이 취약하며 빈부격차가 심한 중남미 지역은 특히, 여성, 아동, 원주민, 이민자, 노년층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COVID-19이후 국가별 취해진 즉각적인 정책은 국경 폐쇄, 이동금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였다. 봉쇄정책은 경기 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은 수출, 관광, 직접투자, 송금의 유입에서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사들은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임금과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특히, 전체 노동자의 38%는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20).

중남미는 2월 26일 브라질에서 첫 번째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취약한 노동자와 빈곤가정의 급격한 소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호 조치를 취했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남미 국가들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회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CEPAL, 2020). 중남미 국가들은 기존의 조건부 현금지원 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 CCT)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기존 현금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의 선 지불, 지원 금액 및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2020년 3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9개 중남미 국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6개의 사회보호 조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CEPAL, 2020). 또한 식량, 마스크, 의약품, 위생용품 등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물, 가스, 전기, 전화, 인터넷, TV 등 기초서비스 분야의 청구서 지불을 정지하거나 면제해 주었다. 공식부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며 이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해고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물가를 통제하고 신용과 담보지불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20년 4월 기준, 29개 국가들이 취했던 사회 보호 조치들 중 식량 및 의약품 지원은 전체의 33%, 새로운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수립은 27%, 기초서비스 지원은 19%, 기존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범위와 금액의 확대는 17%, 기존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에 대해 선 지불을 한 경우는 5%를 차지하고 있다(CEPAL, 2020). 이처럼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중남미 사회보호 정책은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중남미 사회보호 정책〉

현금지원 프로그램(Cash Transfer Program)	물품지원	기초서비스지원	공식부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호 조치	개인, 가구에 대한 기타지원
새로운 현금지원 프로그램 기획 (비조건부 프로그램으로 전환)	식량, 마스크, 의약품, 위생용품	청구서의 지불정지 혹은 면제(물, 가스, 전기, 전화, 인터넷, TV)	재택근무 허용, 소득과 일자리보호(실업보험, 해고금지)	세금감면, 물가통제, 신용, 담보의 지불용이
기존 조건부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선 지불, 금액 및 혜택범위의 확대				

출처: CEPAL(2020)을 토대로 작성

한편, 중남미 지역 차원에서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쿠바는 의료 외교를 통해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자메이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그레나다, 앤티가 바부다,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 아이티, 세인트 키츠 네비스를 지원하였다(Molano, 2020). 남미지역에서 2019년 결성된 프로수르(Foro para el Progreso y Desarrollo de América del Sur, PROSUR)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정부는 보건부 장관과 오부즈맨 사이에 연락 채널을 만들고 PROSUR를 통해 정보공유와 협력을 표명하였다. 중미지역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벨리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연합지역계획(Plan Regional Centroamérica Unida contra el Coronavirus)에 서명하였다 (UNDRR & SICA, 2020). 이처럼 중미통합체제(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SICA) 회원국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의 감소라는 접근 시각을 통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조정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국내, 지역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질병의 통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성 성격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COVID-19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위기와 국가안보의 이슈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만큼 봉쇄정책의 폐지 이후, 특히 많은 타격을 받았던 경제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선별적인 계층이 아닌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새로운 사회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적인 새로운 정책들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현금지원 프로그램은 영구적이며 취약계층을 넘어서 향후 취약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저소득, 중저소득 계층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과 장기적으로 COVID-19와 공존하면서 경제가 재 활성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CEPAL (2020a), El desafío social en tiempos del COVID-19, Santiago: CEPAL.  
OECD (2020), COVID-19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aris: OECD.  
Hussain, Murtaza, America and the new geopolitics after Coronavirus, April, 12, 2020, <https://theintercept.com/2020/04/12/coronavirus-response-geopolitics/> (검색일: 2020. 8. 15).  
Molano Cruz, Giovanni, Geopolítica del coronaviru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marzo 30, 2020, <https://razonpublica.com/geopolitica-del-coronavirus-america-latina-caribe/> (검색일: 2020. 8. 15).  
UNDRR & SICA (2020), Centroamerica Unida contra el Coronavirus COVID-19, file:///C:/Users/Owner/Downloads/Centroam%20C3%A9rica%20unida%20contra%20el%20coronavirus%20COVID-19%20(3).pdf  
Who, <https://covid19.who.int/>

## 저자 소개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 중남미 지역학 석사, 박사졸업했다.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연구실 및 중남미팀 정책연구원이며, 현재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이다. 논문으로는 “분절화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멕시코 도시정책의 젠더주류화 분석” 등이 있고, 저서는 「중남미국제개발협력입문」 등이 있다.



LATIN AMERICA **FOCUS**

##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본 쿠바 공공의료의 함의

---

정 이 나 (쿠바 의과대학)

불평등의 상황을 인정하고 감수하는 삶의 무게. 그것은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이 지난 수백 년간 감내하며, 때로는 분노와 저항을 통해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의 굴곡진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이기도 할 것이다. 불평등은 분명 절대적 가난과는 구별되는, 소위 사회계층 간의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구조적 원인이다.

폴란드의 유명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그의 동명 저서에서 불평등을 참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바우만이 인용한 대니얼 돌링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떨까.

대니얼 돌링은 불평등의 현상과 원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부유한 국가들 내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정의의 교의들에 대한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만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구조

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한다.<sup>1</sup>

라틴아메리카를 이야기할 때 불평등의 주제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이미 고리타분한 일이 되었다. 지역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주제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테니까. 그리고 어쩌면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동반하며, 그래서 급기야 해결이 아닌 은폐와 외면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신자유주의 경제기조가 득세한 1980년대 이후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 지역에 치명타를 가한 경제개혁정책은 이미 부유한 소수와 빈곤한 다수를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결과는 21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지형을 바꾸어 놓는 사회적 위기였고, 결정적 계기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은 마이크 데이비스(2007)가 “슬럼, 지구를 덮다”라는 저서에서 전지구적 자본주의화가 어떻게 도심의 빈곤화를 양산하며 동

<sup>1</sup> 지그문트 바우만(2015),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p.35

시에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소위 ‘공신력’ 있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와중에 흡사 유럽 중세시대의 흑사병을 연상케 하는 코로나 19는 지난 2019년 12월 발병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이제 없다. 20세기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글로벌 시대, 즉 ‘세계는 하나’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이 등장했고, 잠시 그 전성기를 누렸던 인류는 마치 청구서를 받아 든 기분이다. 수백 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놀랍다. 과거와 다르게 이 감염병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곧 만들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이유다.

대니얼 돌링이 언급한 불평등을 감수하게 되는 ‘믿음’의 기저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극단적 자유 개인주의까지도 옹호하게 되는 이 같은 믿음은 마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무모한 ‘믿음’과 다르지 않다. 국가를 우선했던 과거 전체주의의 뼈아픈 경험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길을 열어주었다

면, 이는 다시 통제받지 않는 시장경제를 외치는 자본의 습성과 결합하여 사회의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지금의 사회구조를 잉태시켰다면 과한 해석일까.

이 신념들의 결합은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이미 20년 전 유엔대학 세계경제개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이미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최상위 부자 1퍼센트가 전 세계 자산의 40퍼센트를 소유하고 상위 10퍼센트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85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에, 하위 50퍼센트는 전 세계 부의 겨우 1퍼센트만 차지한다”.<sup>2</sup> 이 적나라한 불평등한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수긍하며 심지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분명, 20세기 후반 재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다수 빈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유층과 중산층은 그들만의 동지를 찾아 점점 고약해지는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미 과포화된 라틴아메리카 대다수 도시에서는 계층에 따라 재분리된 ‘사회’가 등장하였고, 빈곤, 폭력, 마약 등으로

<sup>2</sup> 지그문트 바우만(2015)에서 재인용. p.9.

대변되는 이 독특하고 우울한 도시 빈민가의 역사는 뿌리 깊다. 브라질 리오테자네이로 최초의 파벨라는 그 역사가 1880년대까지 거슬러 가고, 베네수엘라 바리오는 20세기 중반 이후 급증한 경우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의 도시 빈곤이 50% 급증한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은 통계다.

전 세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현재 코로나19의 위기의 본질은 이미 촘촘히 짜여있는 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전염병 관리나 질병 문제를 다루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단순히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사회의 의료시스템이 정착되고 관련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그 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사회적 속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건강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라틴아메리카의 빈부격차는 이미 세계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최근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보다 더 단순하고 명료하

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라틴아메리카의 취약한 공공 의료시스템만을 문제 삼는 것은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의료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자문해보면 알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포함하지 않은 국가들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이미 수십 년 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의 민영화는 공공 의료의 ‘비효율성’과 재정의 비용삭감을 들어 거침없이 추진되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의료의 양극화가 진행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칠레는 역내 의료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칠레는 국민이 가장 비싼 약값을 치러야 하는 국가일 뿐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공공의료가 설 자리가 사라진 것은 병원운영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던가.

보건학자와 경제학자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이는 원칙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라는 마이클 마멋(2018)의 주장의 핵심은 결국 병원의 기능을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그로 인해 건강의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지적인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오히려 잠재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도심 빈민가에서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제아무리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스스로 병원을 찾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국민 소득이 낮은 이른바 ‘가난한’ 나라 쿠바의 공공의료료가 여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의료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효율성”을 절대 가치로 삼는 경제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쿠바의 공공의료 정책을 “국민의 건강권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원칙과 이데올로기”의 잣대라면 어렵지 않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는 진료비를 감당해야 할 일이 미국의 현실이라면, 역으로 이를 통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새겨볼 일이다.

인류의 합리적 이성에 기반한 ‘진보’가 이를 곧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백신”뿐만 아니라 인류가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이끌어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왜곡된

자유주의가 주장하듯 개인의 불행이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한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모두가 100m를 10초 이내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진 좌) 코로나19이후, 지역감염 전수조사 중 지역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의대생 모습 (2020.06).  
사진 우) 취약계층인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하며 상태를 확인하는 지역의 의료진들 (2020.06)

## 저자소개



중남미 사회 인류학자. 살라망카 주립대학에서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조직인 주민평의회 연구로 사회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 사회운동/계급투쟁/사회불평등/빈곤/사회구조 등이며, 베네수엘라/멕시코/과테말라/쿠바 지역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쿠바 의과대학에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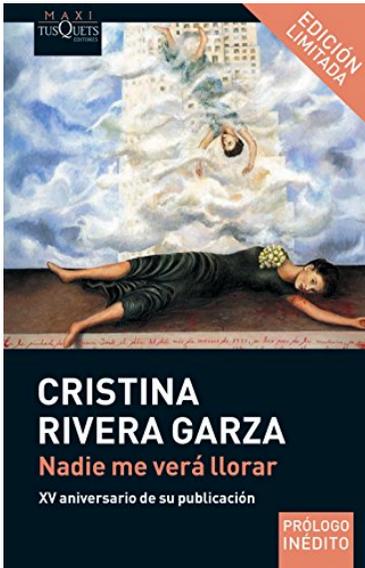
## LATIN AMERICA BOOK JOURNEY

Nadie me verá llorar (Cristina Rivera Garza, Tusquets Editores, 1999)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못할 것이다』

---

박정원 (경희대 스페인어과)



멕시코 혁명을 20세기 멕시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20세기에 발생한 전 세계의 첫 번째 혁명이라는 세계사적 가치를 제외하더라도 이 혁명을 통해 멕시코는 과두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과거와 절연하였고, 혁명 이후 제한적이지만 혁명의 가치에 기초한 국가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경제적 분야로 이어져 1940~1960년대에 걸쳐 소위 ‘멕시코의 기적’을 탄생시켰으나, 동시에 혁명정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설립한 여당의 장기 집권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부패로 연결되었으며 올림픽 개최와 동시에 벌어진 틀라텔롤코 학살 사건을 기점으로 헤게모니를 상실하기 시작한다. 결국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시점인 200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은 약 70년 동안의 집권을 마감하게 되었다.

혁명을 통해서 20세기의 멕시코의 파노라마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20세기 멕시코 문

학은 멕시코 혁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혁명의 필요성을 담아낸 마리아노 아수엘라의 『하층민들(Los de abajo)』에서부터, 기나긴 혁명 과정과 그 이후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담아낸 후안 룰포의 작품들, 혁명의 가치에 대한 배신에 대한 도저한 성찰을 다루는 카를로스 푸엔테스 등 멕시코 혁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품에서부터, 혁명을 매개로 하여 멕시코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옥타비오 파스의 『고독의 미로(El laberinto de la soleda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를 탐구해 왔다.

하지만 20세기가 저물어가고 기나긴 제도혁명당의 집권이 끝나가면서 멕시코 혁명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가 잦아들 무렵, 새로운 방식으로 멕시코 혁명기를 해석하는 소설 한 편이 등장하였고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었다. 역사학 전공 교수인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Cristina Rivera Garza)는 자신의 박사 논문 주제인 라 카스타네다 정신병원에 관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결합하여 20세기 전반기 멕시코의 파노라마를 그려낸다.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못할 것이다(Nadie me verá llorar)』는 정확히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70년 집권이 막을

내리기 바로 전 해인 1999년에 발표되었다. 소설은 수도 멕시코시티 근교의 라 카스타네다 정신병원에 감금된 마틸다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그녀의 일생을 반추한다. 마틸다는 어떤 연유로 광인이 되어 이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선, 이 소설은 초기 근대화 과정에서 추진한 건전한 시민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과학적 진보와 질서라는 근대화의 이상을 앞세운 멕시코 정부는 19세기 말 전근대적 과거와 결별하고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시민상을 만들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이 정신병원을 설립하고 이상적 시민이 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정신이상자, 알콜중독자, 부랑자를 비롯하여 무정부주의자나 심지어 원주민까지 감금하게 된다. 즉, 이 소설은 “정신병원이 근대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 이론의 멕시코식 버전인 셈이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고아가 된 어린 마틸다는 수도 멕시코시티의 삼촌 집으로 보내진다. 근대과학의 신봉자이자 의사인 삼촌은 막 시골에서 올라온 조카를 훌륭한 실험 대상으로 보고, 마틸다에게 남아있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이며, 비위생적인 면을 ‘치료’하기 위한 교육과 훈육을 시도한다. 청결하고 깨끗한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행동 지침과 습

관을 만들고 이에 상응하지 못할 시에는 체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생이라는 단어는 근대에서 새롭게 개발된 개념으로 푸코식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몸을 통제하고 제어하려는 권력의 장치 중 하나인 셈이다. 하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한 마틸다는 가출을 선택한다. 이후 살아가던 동네에서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일을 나가게 된다. 그러자 주위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는 동시에 업소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비위생적이고 불결하다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창녀’, ‘미친 여자’,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분류되면서 결국 마틸다는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없는 위치로 강등되고 만다. 이를 통해 소설은 위생을 통해 시민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다시 말해,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공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표준화와 규범을 통해 정형화된 개인을 만드는 훈육체제로 편입시키는 작업이라는 이중성을 폭로한다.

둘째, 이 소설은 기존 멕시코 사회의 모순이 폭발한 결과로서 멕시코 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어느 날 마틸다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급히 몸을 숨기게 된 젊은 청년 카스

톨로를 알게 된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쫓기는 이 젊은이의 부상을 치료해 준 그녀는 카스톨로 또한 농촌에서 상경했으며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우연히 무정부주의자 모임에서 다시 만난 이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카스톨로가 급진적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였다면, 정숙하고 가정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난 마틸다는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보완적 존재였다.

하지만 마틸다는 카스톨로가 꿈꾸는 혁명이 과학에 근거한 사회의 변혁이라는 점과 그가 진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의사인 삼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작가인 리베라 가르사는 멕시코 혁명이 당대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지만 근대 세계가 구축하는 제도와 규율의 가져오는 부정적 여파에 대해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눈감고 있음을 지적한다. 마틸다는 혁명 이후에도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정상인에서 벗어난 시민으로 강등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혁명이라는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자각한 그녀는 긴 침묵 속으

로 빠져든다. 이렇게 소설은 멕시코 혁명에 대한 기존의 문학적 성찰의 한계를 지적한다. 혁명의 이상이 사라지고 배신당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을 넘어, 멕시코 혁명의 가치가 담보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셋째, 이 과정에서 소설은 혁명 이후 형성된 남성중심적 문화와 국가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의 존재를 역사의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자 한다. 세상과 말을 섞지 않기로 결심한 후 마틸다는 라 카스타네다라는 정신병원으로 자원해 들어간다. 그곳은 “아무도 그녀가 우는 것을 볼 수 없음”으로 차라리 나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혁명기간 동안 폐허가 되었던 이 병원은 이후 다시 복원되어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일부러 더 미친 것처럼 보이도록 말하고 행동한다. 한편, 엘리트 지식인이지만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또 다른 환자 호아킨은 취미로 당시 흔치 않았던 사진기를 갖고 있었고 환자들의 사진을 찍고 는 했는데 마틸다가 가진 이러한 도전적인 면에 끌리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언제라도 병원에서 나갈 수 있었던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 마틸다와의 정상적 생활을 꿈꾸게 되고 마침내 그녀에게 청혼을 한다.

그리고 그녀를 정신병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고, 언제까지나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마틸다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자신은 그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겠다는 거절이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반대하는 동시에, 여성이 되어야 할 궁극적인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당대의 상황이 여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멕시코 혁명을 전후로 한 마틸다의 삶을 라 카스타네다라는 정신병원과 연결해 보여주면서,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멕시코의 근대 국가 프로젝트를 반추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상인 혹은 건전한 멕시코인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작용 혹은 부작용을 탐색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마틸다는 근대적 멕시코인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희생자 중의 한 명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끝내 호아킨의 제의를 거부한 채 라 카스타네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소설의 제목처럼 이 사회의 그 누구도 그녀의 고통과 눈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꿈꾸던 멕시코 혁

명도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던 것은 없었다. 이렇게 저자인 리베라 가르사는 멕시코 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혁명 역시 큰 틀에서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수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못할 것이다』에서 보이는 마틸다의 광기어린 말과 행동을 단순히 정신분석의 틀로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오히려 정상과 표준화를 강요하는 사회를 간접적으로 폭로하는 퍼포먼스적 행위이기도 하며,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표준적 시민의 육성이라는 목표에 대항하는 외침이자 저항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마틸다는 단순한 피해자 혹은 희생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멕시코 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또 다른 혁명을 꿈꾸는 선구자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멕시코의 20세기 역사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한,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 이 소설은 멕시코 혁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근대 멕시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못할 것이다』을 기점으로 리베라 가르사는 멕시코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대표

하는 작가로 발돋움하였다. 역사학 전공자답게 기존 역사서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동시에, 인간의 내밀한 심리분석을 탁월한 방식으로 교차시킴으로써 사회와 개인, 전체와 부분, 거시사와 미시사를 아우르는 전범을 마련하였다는 극찬을 받고 있다. 아쉽게도 그녀의 작품에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다. 조만간 이 소설을 우리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자소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에서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교수와 비교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멕시코 국경, 라틴아메리카 문학 및 영화 및 라틴아메리카 생태 및 대안사회 운동을 포함한다. 대표 논문으로는 「칠레의 <NO>와 한국의 <변호인>: 영화와 포스트 메모리의 정치」가 있으며,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 명저 산책』(2018, 공저) 등이 있다.



LATIN AMERICA VOICES

## 한국인이 보는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코로나 현황

---

김영숙 (국제 NGO 월드쉐어 아이티 지부장)

한 때, 중국 발 코로나19 사태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휘두를 때,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나는 “와우~ 중남미는 무사해! 코로나19 없는 청정지역이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2월 22일 입국한 첫 확진자로 시작된 이곳 도미니카(공)의 코로나는 3월 1일 도미니카(공) 보건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통제와 재개를 반복하며 현재 통행제한, 휴교령, 국경 폐쇄(또는 부분 폐쇄)까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티와 도미니카(공)을 넘나들며 두 국가 사이에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나로서는 사뭇 두 국가의 사태 대응과 현황이 흥미롭다.

아이티와 도미니카(공)는, 예전에 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다르다. 육로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다니다보면, 참으로 천국과 지옥을 지나오는 느낌이다. 그런 아이티와 도미니카(공)는 코로나 현상도 매우 다른 분위기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미니카(공)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먼저 발생했고, 데모와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 요소가 매우 커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출입이 뜸했던 아이티는 3월 20일 다소 늦게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이티의 첫 확진자는, 그때 입국한 외국인(고아원 후원자)이었다. 확진자 발표가 있는 후, 그 고아원 주변의 아이티 사람들이 그 고아원에 몰려가 돌을 던지며 욕을 하고 항의를 했다. 비록 자신들 나라의 어려운 고아들을 도운 사람이지만, 아이티인 들에게 그런 선행은 아랑곳없이 돌을 던진 것이다. 이런 아이티인들의 반응은 외국인이 아닌, 같은 아이티인 유명가수가 확진자로 발표 났을 때도 같았다. 그 가수의 집에 돌을 던지고 거친 말들로 항의하였다. 아이티인 들은 내가 만난 몇몇 국가의 어떤 국민들보다 반응이 불같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두 국가의 현재 코로나19 현황은, 도미니카(공)의 확진자 수와 아이티의 확진자 수가 매우 다르다. 2020년 8월 23일 현재, 도미니카(공) 총 확진자 수는 인구 약 1천80만 명 중, 90,561명인데 비해, 아이티의 총 확진자수는 인구 약 1천1백40만 명 중 8,082명이다. (자료출처 :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아무 대책 없이 2만여 명이 드나드는 아이티의 수도 포트프랭스(Port-of-Prince)의 중심에 있는 산업공단 소나피(SONAPI)의 상황을 보면, 아이티인 들의 안일한 대응이

큰 폭의 확진자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 소나피 공단 출퇴근길에는 다닥다닥 붙어 걸어오고 걸어 나가는 수많은 인파 속에, 사회적 거리도 마스크도 보기 어렵다. 듬성듬성 놓인 손 씻는 위생 물탱크는 더위를 못 이겨 머리 위에 붓는 물이 되었다. 겨우 볼 수 있는 마스크는 그들의 형식처럼 턱만 가렸다.



소나피 공단에 출퇴근하는 인파. 초상권 침해 문제로 뒤에서(차량 안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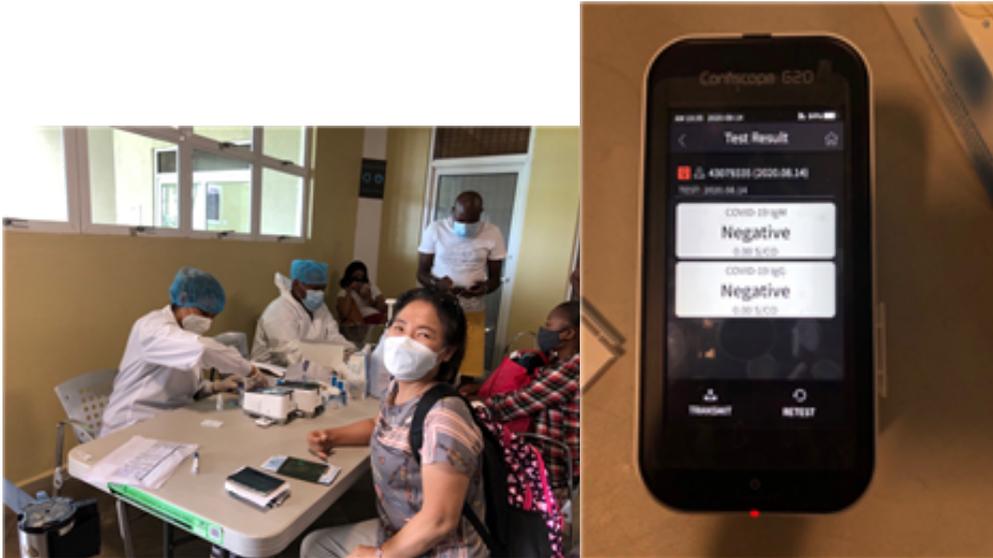


좌) 공단 입구에 형성된 노점상들. 얼핏 보아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아무도 마스크조차 하지 않았다.  
우) 땀땀(소형 트럭을 개조한 대중교통)에 다닥다닥 붙어 앉은 사람들, 앉을 자리가 없어 붙잡고 서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마스크는 하지 않았다.

\* 2020.08.11. 아이티 소나피 공단을 다녀오면서. 필자 촬영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미니카(공)는, 도미니카(공)에 부를 선물하였고 또한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산업인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확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관광산업이라는 큰 선물과 코로나19라는 위급한 사태 사이에서 고민한 도미니카(공)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항을 열었고, 자가 격리도 해제했다. 그리고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지참하도록 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처 검사 결과지를 소지하지 못한 입국자에게 현장에서 무료로 검사를, 이민국 통과 전에 실시하는,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필자도 아이티에서 다시 오던 날(8월 14일), 이사벨라(Isabella) 공항 입국장, 이민국 통과 전 입구에서 무료로 코로나19에 대한 혈액 검사를 받았다(결과는 음성). 아이티에서 그 소식(5일 내 검사 결과지 지참)을 들었으나, 아이티에서는 일반인(증세가 없는 사람)이 검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공항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혈액 검사. 손가락 끝에서 혈액형 검사하는 정도의 혈액을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고, 모바일 검사 기계에 넣은 후, 5분 기다림. 결과는 음성으로 나옴. 그리고 이민국의 입국 절차를 밟음.

2020.08.14. 도미니카(공) 이사벨라 공항에서. 필자 촬영

지난 8월 10일, 아이티는 코로나19로 닫았던 학교를 다시 열었고, 수도 포토프랭스에 있는 국제공항을 다시 열었지만, 인근 국가인 도미니카(공)에서는 아이티와의 국경을 열었다 닫았다 를 반복하였다. 현재(2020. 8. 23일)는 아이티-도미니카(공) 국경은 육로는 닫혔고 항공로만 열려있다.

도미니카(공)도 아이티도, 두 국가의 산업 구조는 미국 시장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장 경제가 매우



휴교령으로 약 4개월 문을 닫았던 아이티의 학교들이 다시 8월 10일 개학하였다. 도미니카(공)처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아이티는 코로나19로 학기제가 바뀌게 되었다. 9월이 새 학년 개학이었으나, 코로나 휴교령으로 수업일 수를 채우지 못하여, 이전에는 방학 기간인 8월에 개학하여, 수업일 수를 채우고 새 학년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새 학년이 시작될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아이티 교육부가 발표하지 않았다.

\* 2020. 08. 13. 투찌에(TRUITIER) 마을 소망학교(교사 노엘 촬영)

힘들어졌다. 그래도 도미니카(공)에서는 한국인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티는 한인 봉제 공장 두 곳이 문을 닫았다. 역시 미국 시장의 불경기로 생산 주문이 끊어지고 회생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두 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실직자만 4천여 명이나 된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니, 더 어려워지는 아이티가 되었다.

아이티 사람들은 ‘아이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런 아이티인들의 상식을 무너뜨린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주로 만나는 동네



쓰레기장이 집이고 놀이터가 된 아이들

내가 만난 투찌에 쓰레기 마을 아기, 15개월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왜소하였다. 맨 땅을 기어가고 있던 그 아기는, 습관처럼 강통 안을 보며 무언가를 찾았다. 내가 안아 보았을 때, 아기는 영양결핍으로 무척이나 가벼웠다. 내 마음은 그만큼 무거웠다.

\* 투찌에 마을에서 필자 촬영

사람들 -쓰레기 마을 투찌에 사람들은 하루 한 끼 겨우 먹는다. 그들에게 코로나19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삶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아이티에 코로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다. 이유 없이 피해 다녔던 검은 연기 데모, 정치 비리, 갱들의 전쟁, 이것저것 모두 양보한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들의 의지를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공감이 된다.

약한 기류에도 쉽게 흔들리는 경비행기를 타고, 도미니카(공)의 푸른 땅에서 아이티로 점점 넘어오면서, 희미해져 가는 녹색과 하얘지는 모래산, 마른 들판으로 바뀌는 것을 내려다본다.

사실인지 비리인지... 오히려 가난 앞에 약해지는 코로나의 잠잠함! 국제공항들을 누비며 대륙을 넘나들던 코로나19가 아이티 거친 땅 앞에서 멈추어 서기라도 한 것인지... 그래도 내일은 승리를 노래할 것이다!

## 저자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하베스트 대학원 교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5년 (사)함께하는 사랑밭 케냐 지부를 개척하고, 초대 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함께하는 사랑밭의 자기관인 국제NGO 월드쉐어 아이티 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제NGO 월드쉐어 도미니카(공) 지부를 개척하여, 잠시(2019.05~2020.01) 아이티 지부장/도미니카(공) 지부장을 겸임한 바 있다.



LATIN AMERICA VOICES

## COVID-19와 브라질 한인사회의 역동적 응대

---

손정수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 전 이사장)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민 6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브라질 한인사회. 세대도 1세대에서 2세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코비드 19가 창궐하며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이탈리아를 다녀온 첫 환자가 2월 26일 확진 받으며 국내 시장은 요동쳤다. 한창 불경기로 조마조마 하던 시장은 바로 반응하며 환율은 40% 이상 급등했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경제 축을 이끄는 상파울루 주지사는 3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격리를 시행했다. 격리는 우리 한인이 이룩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계기가 됐다.

5만여 명의 한인이 사는 브라질. 대부분 상파울루시 중심지 봉헤치로(Bom Retiro)에 한인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봉헤치로는 2차 대전 전후 이탈리아, 그리스, 유대인을 거쳐 이제는 우리 한인이 활동하는 전통적인 이민 동네이다. 상파울루시에서 법령으로 한인촌으로 지정한 첫 이민 동네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한인촌에 모든 한인이 사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넓어 지역마다 퍼져 살고 있지만, 대다수 이곳에서 의류와 관련된 일을 한다. 한식당 등 먹거리 시

장도 50여 개가 되고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는 곳이다.

작은 강을 건너 수천 개 옷가게 있는 브라스(Bras) 지역과 더불어 우리 한인은 80~90년대 최대 2,200여 개 이상의 가게를 운영했다. 시대가 변하며 불경기로 지금은 1,000여 개 정도로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한인이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류업은 단순히 옷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다. 원단, 원사, 단추, 포장지 등 다양한 부품이 필요하고 다림질, 주름, 염색 등 서비스도 필요하다. 한국, 중국 등에서 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 하여간 국내에서 인정받은 큰 시장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민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의류업을 다르게 봤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4차 산업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늘어난 규제와 경쟁으로 예전과 같이 큰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일부는 아예 업종을 변경했고 취업하고 전문직에 도전했다. 점차 어려워지는 의류업에 큰 변화는 있을 것이라 누구나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또 큰 여파로 오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3월 20일부터 시행된 첫 격리는 딱 15일만 시행되는 것이었다. 모두가 집에 있으면 바이러스 확진도 줄어들 것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대다수는 믿었다. 브라질 사람은 독감과 비슷한 바이러스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격리로 일어날 피해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격리는 예상보다 잘 못 됐다. 참여율이 70% 이상 되어야 하는데 60% 미만, 심한 경우 50% 정도만 집에서 격리했고 나머지는 돌아다녔다. 즉, 격리는 지켜지지 않는 불편함만 남겼다.

실패한 원인은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장과 병원, 약국, 슈퍼마켓, 빵집 등 필수 업체는 계속 정상 영업했다.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계속 일을 했다. 대중교통도 돌아다니는 등 도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첫 15일간 집에서 격리하던 시민도 격리가 계속 연장되자 점차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한인도 석 달간 가게를 열지 못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임대료를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또 그동

안 사농은 물품 대금도 내야 했다. 이와 별도로 자녀 학비와 생활비도 충당해야 했다. 그런데 격리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돈이 돌지 않으니 경제 상황이 점차 악화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한 유예기간 후 사정없이 받아내고 있다. 자녀 학비도 최소 10% 할인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액 그대로 받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이다.

연방정부에서는 격리 초기 두 달간 월급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격리는 계속 연장되며 이제 다섯 달을 넘겨 눈물을 머금고 직원을 해고했다. 주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이나 융자금 지원 하나 없이 가게를 열지 못하도록 감시만 하며 시민의 성토를 받았다. 실제로 한 한인 업체는 격리 기간 중 비밀리에 영업했다는 이유로 2,000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여 받았다. 삶도 어려운데 기본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악몽 같은 기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지 고민하는 사람도 한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가게 문을 닫고 무작정 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 오랜 불경기와 여러 이유로 지난 5년간 만여 명의 한인이 브라질을 떠났다고 한다. 그런

데 올해 코비드 19로 대략 3,000여 명이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떠났다는 것의 안타까움과 남은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남았다.

안타까운 점은 하던 사업을 폐업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갔다는 것이다. 폐업을 신고하려면 시간과 돈도 많이 들고 지금 그럴 여력 없어 들어갔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 지난 몇 년간 브라질에 다신 오지 않겠다며 한국으로 들어갔던 사람도 있다. 이곳에 사는 친척도 만나고 싶고 향수병에 걸려 브라질의 돌아오려고 했지만, 밀린 세금과 소송으로 공식 루트로 못 오고 인적 국을 통해 밀입국했다가 돌아간다는 경우도 들었다. 결국, 미래를 위해 폐업 정리는 꼭 해야 한다.

많은 한인이 운영자금이 모자라 압박을 받고 있다. 웬만한 가게는 한 달에 운영비로 수만 불이 필요하다.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쓰는 사람 있는가 하면 주위 친척이나 또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숨통을 틔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회의가 드는 경우가 허사였다. 지난 6월부터는 주 정부는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가했다. 이때 한인은 큰 기대가 있었다. 석 달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전국으로 팔려나갈 도소매 주문이 몰릴 것으로 봤다. 의욕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주 정부 규제는 다시 한번 좌절하게 했다.

먼저 하루 영업시간은 4시간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였다. 즉, 내부에서 일은 해도 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의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결론은 사람이 더욱 몰려 혼잡해졌다. 가게는 의무적으로 손세정제를 구비해야 했고 가게 앞에서 들어오는 손님의 온도를 확인해야 했으며 마스크 미착용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등 일할 것이 넘쳤다. 사실 이런 것은 주 정부와 시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자영업자에게 넘겨 논란이 많았다.

가게 문을 열려고 급히 대용량 손 세정제와 온도계를 샀다. 매장에 손님 수도 제한되어 40%만 입장이 허용됐다. 제한하고 감시, 이 모두 인력비가 느는 것인데 모든 비용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받는다. 이게 모순이다. 정부에서는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렇지 않아

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하느라 한인은 정보를 공유하며 마스크 온도계를 공동 구매하는 등 준비했다.

드디어 가게를 열었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많이 저조했다. 가장 큰 이유로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아직 유행하고 있어 외출을 두려워한다. 또한 오랜 격리 생활로 돈이 없다는 것이다. 격리 기간 중 그나마 잘되던 식품점은 장사가 재개되며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고 한다. 주 손님인 한인 옷 가게 장사가 안되자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한식당의 고통도 비슷하다. 격리 기간 중 손님을 받을 수는 없었고 배달은 가능했다. 그런데 이 모두 평균 매출의 채 10%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잘되는 경우다.

이런 와중에 한인회를 비롯하여 브라질 문화 예술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대다수 종사하는 의류 제작 경험을 무기 삼아 원단으로 마스크를 제작하여 사회에 기부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인촌에 있는 보건소와 경찰서에 갔다 왔다. 코비드 19가 창궐할 초기, 정부의 안일한 준비와 예산 부족으로 필수 보호장비조차 모자랐던 보건소 직원은 마스크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삼시간 소문이 퍼지며 지역 경찰서를 비롯, 교사협의회, 시의회

등에 기부했고 특히 우리 이웃인 볼리비아인 회에도 기부했다.

점차 나눠주기 시작하자 브라질 언론에서도 관심을 두고 특별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코비드 19로 공포심에 모두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운동은 브라질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이다. 이곳에 사는 외국인이 아닌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긍정의 힘을 보여준 한인사회의 운동은 케이팝과 같이 소개되며 브라질 언론에서는 크게 다뤘다.

한인회를 선두로 한인은 힘을 모았다. 기부금도 속속 모금됐고, 쌀과 진단 키트 등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경제활동이 멈춰 힘든 한인을 위해 십시일반 돕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마스크 무료 배포는 물론, 사회적으로 소외된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에게 생필품과 지원금을 나눠 한인이 조를 짜서 직접 나눠줬다. 격리로 다들 집에서 어려운 시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기증받은 진단키트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도 시행했다. 이때 7%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 바이러스가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다.

확진을 받은 몇 한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언어가 안 되는 이중 고통을 받았다. 이를 돕고자 뜻있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공립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월 한창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한인회장은 우리 한인을 대표하여 의료체계가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마나우스시에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서 기증하여 사회적으로 뉴스가 되기도 했다. 이런 기부와 행동으로 브라질 사회에서도 깊게 보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한인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따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해주기도 했다.

3,000여 명의 한인이 떠나는 혼란한 한인사회. 그래도 이런 혼란한 시기에 한 점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한 인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대부분 이민 1세대가 주류를 이뤘다. 즉, 아버지 세대가 사회를 이끌고 1.5세를 비롯한 2세는 참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제 40대가 넘는 2세대 젊은이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 나온 것이다. 한인 단체를 비롯하여 브라질 사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코비드 19가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가는 한인 이민 사회. 젊은이들의 꾸준한 활동에 힘입어 지원금과 봉사활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사랑의 쌀 나눔’은 3차까지 이어졌다. 소금, 설탕, 쌀 등이 들어 있는 생필품 200상자를 나눠줬다. 기부만 있었던 건 아니다. 매년 8월 15일 날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는 취소 되었지만 ‘광복절 문화예술 공모전’을 열어 우리 기상을 이어갔다. 또한 미스코리아 브라질 선발대회도 개최하여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한인 단체에서 시청의 허가를 받아 봉혜찌로 한인촌과 브라스 한인 밀집 지역에 방역했다.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 후 시행한 길거리 방역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크게 홍보됐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 국민에게 작지만 깨끗한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브라질 한인사회가 어려운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먼저 이민 60주년이 다 돼 가며 일선에서 은퇴한 후 고향을 찾아 한국으로 귀환하는 1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산업이 재편성되며 기존 사업이 흔들린다는 것. 어쨌든 한인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여러 이유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자발적 또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떠나는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이민사회의 필연이라고 본다. 그러나 코비드 19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하여 고통을 배로 준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한인사회도 기지개를 켜고 이 세상을 이어갈 밝은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어려웠지만, 서로 힘을 결속하는 시기가 됐고 세대교체라는 변화도 준 것이다. 우리는 브라질에 사는 이방인이 아닌 어엿한 책임을 지는 사회인이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보여줬다. 잠시 움츠러든 몸을 깨워 이제 한 발자국이 아닌 한 계단을 오르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가 많은 모든 한인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래 사진 제공 : 브라질 한인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SSOCIACAODOSCOREANOS/](https://www.facebook.com/ASSOCIACAODOSCOREANOS/)











**IILAS NEWS**

## **간추린 소식**

---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1. 중남미지역원·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제2회 아젠다 연구 협의회 (2020.05.23.)



(중남미지역원·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제2회 아젠다 연구 협의회)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5월 23일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와 제 2회 아젠다 연구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남미지역원·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상임 위원회 간담회와 2020년도 라틴아메리카학회 운영 및 결정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중

남미지역원-라틴아메리카학회 협력 사업 방안 그리고 하계 학술대회 공동 개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 문화동호회 및 명저읽기 모임 ‘부에나 비스타’ 정기모임 실시 2020.05.26.[9회], 2020.06.23.[9회], 2020.07.28.[10회], 2020.08.25.[11회]



(라틴문화모임 ‘부에나 비스타’ 정기모임)

중남미지역원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 인문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라틴 문화모임인 ‘부에나 비스타’는 부산·경남권의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에나 비스타’는 매달 정

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명저 읽기와 명화 감상 시간을 가진다. 본 프로그램은 2018년 11월 26일에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회의 모임을 가졌다.

### 3. 제 40차 콜로키엄: "공간에 투영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불평등" (2020.05.28)



(제 40차 콜로키엄)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5월 28일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김희순 교수님을 초빙하여 ‘공간에 투영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불평등’이란 주제로 콜로키엄을 진

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형성 과정에서 부여된 불평등, 식민지배 이후 부여된 불평등, 20세기 대규모 이촌향도 과정에서 부여된 불평등, 21세기 세계도시 체제 내에서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불평등의 원인을 엘리트의 시각과 소외된 이들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 4. 제1회 중남미지역원·스페인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합동 세미나 개최 (2020.06.12.)



(제1회 중남미지역원·스페인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합동 세미나 개최)

중남미지역원은 지난 6월 12일일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연구소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합

동세미나는 라틴아메리카, L.A.T.I.N.+를 통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의 3가지를 세미나의 주제로 진행하였다. 1부는 이재학 고려대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장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허브로의 발전’, 2부에 중남미지역원 임상래 원장이 ‘신전환(New Transition)의 라틴아메리카, L.A.T.I.N.+를 통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를 발표하였다. 3부의 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장식영 연구교수는 ‘라틴아메리카의 위험 요소에 관한 연구와 양국간 협력 관계 구축’와 4부는 중남미지역원 조영현 HK교수가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의 변증’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5. 제55회 초청강연회 : "한국-콜롬비아 양국협력 증진 방안" (2020.07.09)

중남미지역원은 7월 9일 주한 콜롬비아 대사 Juan Carlos Caiza Rosero를 모시고 "한국-콜롬비아 양국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콜롬비아와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 중남미 유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콜롬비아의 현재와 미래의 가

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시간을 가졌으며 대사관과 중남미 지역원 간 상호 협력교류 등의 내용도 진행되었다.



(제 55회 초청강연회)

## 6.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공동 하계 학술대회 개최 (2020.07.17.~07.18)

중남미지역원은 인문한국플러스(Humanities Korea Plus: HK+)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와 공동으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시대의 라틴아메리카: 동일한 위기 상이한 대응”을 주제로 7월 17일~18일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으며, COVID-19 위기와 생태,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사회, 라틴

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라틴아메리카 문명과 사상 등 폭넓은 주제로 발표했다.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공동 하계 학술대회)

## 7. 제 56회 초청강연회: “코로나 위기시대의 불평등: 쿠바 공공의료 함의” (2020.08.13.)



(제 56회 초청강연회)

지난 8월 13일 중남미지역원은 정이나 박사 (현 쿠바 아바나 의과대학 재학, 전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를 초청하여 “코로나 위기시대의 불평등: 쿠바 공공의료 함의”를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정이나 연구자는 중남미 사회 인류학자로 2018년까지 중남미지역원에서 연구교수

로 재직하다 쿠바 아바나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초청강연회에서는 쿠바의 공공의료와 코로나 시대의 쿠바 의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쿠바의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8. 중남미 지역원, 도미니카공화국 해외봉사활동 (2020.1.29.-02.08)





중남미지역원 김영철, 이태혁 교수는 중남미학부생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2020.1.29.-02.08)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세계시민의식 고양 및 교육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해외봉사 활동은 국제NGO 월드쉐어와 함께 ‘쓰레기 마을,’ 두께사 그리고 아이티 이주자 집성촌, 밧데이 산호세 등 모두 7지 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지 유·초등부 대상 공부방에서 진행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도미니카(공)에서 실시한 봉사 활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진행한 '2020년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부산외대는 2018년 중남미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